

# 광산구 홀로 간병 '영 케어러' 발굴 선제 지원

청년 포함된 3401가구 전수조사  
8가구 사각지대·위험군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 모색  
복지정보 '까치 편지'도 배포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관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병 청소년·청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돌봄을 떠난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만들어 낸 '독박 간병'의 비극과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려는 것이다.

'영 케어러(Young Carer)'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의미한다. 2014년 영국에서 생겨난 용어로, 최근 대구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선 관련법을 제정해 청년 간병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원은커녕 기준 정의, 통계나 현황이 전무한 실정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홀로 간병, 돌봄 책임을

따내고 생활고 등 악순환에 빠진 청년,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연말부터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영 케어러'로 추정할 수 있는 청소년,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했으며, 기초수급, 차상위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급자 중 만 13~34세 청소년 또는 청년이 포함된 3401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주

체, 청소년·청년이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 학업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 총 8가구가 간병 사각지대 또는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현재 이들 8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사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 만큼 '찾아가는 복지팀'과 연계해 반찬 지원, 병원 동행,

정서 안정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청소년 간병인 대상자에 대한 특별관리(모니터링)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영 케어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정보 취약계층을 포괄하고, 복지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적극적인 서비스 안내와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달부터 다양한 복지정보가 담긴 편지형 복지정보 안내문 '까치가 전해주는 친절한 편지'를 제작·배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복지급여와 지원에도 급여의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신청을 못하는 비수급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다. 이 '까치편지'에는 새로운 복지제도, 복지서비스별 신청 시기, 행복 응원 문구 등이 담겼다.

대상자임에도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가절하지 않는 상담'도 지속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로 추정되는 여성, 청년 1인 가구 1만2652세대로 맞춤형 복지급여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진행 중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셀 수 없이 많은 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실질적인 포용적 복지를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외국인 주민 코로나 대응지원단 운영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로부터 외국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들과 대응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광산구는 지난 10일 오후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열어 '광산구 외국인 코로나19 대응지원단(이하 지원단)' 구성을 결정했다.

외국인주민의 경우 언어문제로 변화된 방역지침을 비롯한 선별진료소 이용이나 3차 백신 접종 등 필수 정보 전달이 늦어 방역 취약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단은 시책위원회의 참여하고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광산경찰서, 광주시교육청,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 14개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지원단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달체계, 외국인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필요한 정보와 방역수칙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 등을 맡게 된다.

각 기관·단체들은 조만간 지원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19대응지원단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조기에 외국인주민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마음아, 괜찮아?"...그림책이 전하는 위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6월30일까지 그림책 전시



광주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이 6월 30일까지 '마음아, 괜찮아?' 그림책 전시를 개최한다.

그림책 특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마음을 주제로 다룬다. 총 6회에 걸쳐 이야기꽃도서관 작가실 등 3개 전시실에서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펼쳐진다. 3월까지는 3층 작가실에서 시민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기획하고 설치한 '살이라는 연못에는...'이 열린다.

느끼실은 이달부터 6월까지 그림책 가득한 아늑한 응접실로 변신해 시민을 맞이한다.

'내 마음속 집'을 주제로 예술과 집을 주제로 한 특화 그림책 6권, 소파 등 소품 40점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4월부터 작가실에서 차영경 그림책 작가가 클레이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마음시당 4호점'이 진행된다. 전시와 연계해 작가 강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야기꽃도서관 1층 로비에서도 계절별, 테마별로 선정한 그림책 100여 권이 전시된다.

이달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

는 그림책으로 구성된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전시가, 3월부터는 따뜻한 봄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5월부터는 '당신은 항상 그리운 사람입니다!' 전시로 주변에 기억해야 할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한다.

이야기꽃도서관 관계자는 "마음을 주제로 한 그림책 전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무료다. 전시 설명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예약제로 운영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체력인증센터 개소



### 체력 측정·증진 프로그램 제공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체계적인 체력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력100 '광산체력인증센터' 개소를 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국민체력100 '광산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대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 제공 센터다.

만 11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체력100 '광산체력인증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광주 시민을 위해 온

라인 체력증진 교실을 개설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의 구축 및 강화를 통해 광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또 특성과 사업으로 '광산체력인증센터' 온라인 플랫폼(YouTube, Instagram, Facebook)을 구축해 운동 관련 동영상을 제작·공유하고 있으며, 연중 2회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미숙련자 대상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체력100 '광산체력인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 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nfa.kspo.or.kr) 및 전화(062-955-9109)를 통해 예약 후 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 행안부 자치단체 혁신평가 광산구, 2년 연속 우수기관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산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내 삶이 행복한 광산'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혁신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산구는 민선 7기 들어 기관장 혁신 리더십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광산미래아카데미 운영 등 조직문화를 혁신한 단계 높은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민면역 증진을 위한 행복으로 걷기광산,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 시민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했다.

이번 평가에선 안전경제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 협업을 통해 자치구 역량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늘 행복 프로젝트,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로 지난해 2개의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광산구가 추진한 여러 혁신 정책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를 견디는 힘이 됐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광산구정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